

■ 2024년 문학 창작산실 발간지원 1차 지원심의 총평(시A)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4년 문학 창작산실 발간지원 1차(시A)
- 회의일시 : 2023년 12월 21일(목) 11:00
- 회의장소 : 예술가의집

문학 창작산실 발간지원사업은 우수 작가의 작품집 발간을 지원함으로써 한국 문학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024년도 사업의 시 분과에는 총 339건의 신청이 접수되었는데, 그중 행정적으로 결격이 확인된 33건을 제외하더라도 심의 대상이 306건이나 되어, 이 사업에 대한 시인들의 관심이 매우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시 분과에서는 심의 대상을 A와 B 두 분과로 나누어 각 153건씩을 심의하기로 하고, 분과마다 두 명의 심의위원을 위촉하여 1차 심의를 진행했다. 작품의 문학적 수준만을 심의의 기준으로 삼았다. 작품의 문학적 수준은 작품의 독창성, 형식상의 새로움, 주제 의식의 깊이와 그 전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위원들이 최대한 공정하게 판단하려고 노력했다.

심의 대상의 문학적 수준 이외에 1차 심의위원들이 특별히 고려한 사항은 거의 없다. 다만 이 사업이 공공성을 띠고 있어서 사회의 도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작품, 예를 들어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작품 등은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이러한 고려 역시 오늘날 어떤 의미에서 작품의 문학적 수준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심의 위원들은 생각했다.

시A 분과 1차 심의에서는 일단 19건을 추렸다. 그 면면을 살펴보면, 특정한 경향이나 스타일에 치우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심의위원들의 취향에 좌우되지 않았다는 증거일 것이다. 이 작품들이 선정된 것은 물론 문학적 수준이 다른 작품들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이다. 이 작품들은 독자의 세계 인식에 새로운 충격을 주는 언어 감각 면에서 다른 작품들과 미세한 차이를 보이며, 작품 간의 수월성 면에서 그 편차가 작다는 공통점이 있다.

더 많은 작품집을 2차 심의로 넘기지 못하는 점이 아쉽다. 심의 대상 중에는 이미 자기만의 영역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룬 분들의 작품이 적지 않았다. 이 심의의 결과가 그분들이 쌓은 성과를 무너뜨릴 수 없음은 물론이다. 2차 심의에서 더 다각적인 심의가 이루어져 지원할 만하고,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이 선정되었으면 한다.

시A분과 심의위원 일동

■ 2024년 문학 창작산실 발간지원 1차 지원심의 총평(시B)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4년 문학 창작산실 발간지원 1차(시B)
- 회의일시 : 2023년 12월 21일(목) 14:00
- 회의장소 : 예술가의집

〈2024년 문학 창작산실 발간지원 사업〉은 우수 문학 작품집 발간을 지원하여 연내 작품집 발간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특히 한국 문학의 예술적 역량 확대에 기여하는데 지원의 취지가 있습니다. 이에 1차 심의에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작품의 문학적 수준'을 핵심 가치로 두고 시적 개성과 형식의 새로움, 주제 의식의 전달력과 완성도 등을 평가 항목으로 삼아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시집 발간을 준비하고 있는 시인들에게 이 사업은 관심이 집중되는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지원사업입니다. 이에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의 회피 제도 또한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대체로 일상과 삶의 풍경들을 새롭게 발견하여 시적으로 형상화하고 설득력 있는 주제 의식으로 연결시킨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엇비슷한 발화법과 주제 의식 속에서도 그 완성도가 탁월하고, 그러면서도 색다른 개성을 드러낸 작품들을 1차 심의 통과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먼저 심의위원들의 평가 합산 점수에 따라 150여 건의 작품들 중 상위 20~25건 정도의 작품들이 집중 검토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견의 일치를 볼 수 있는 작품들이 많았고, 그렇지 않은 작품들의 경우 구체적 의견들을 충분히 교환하며 원고의 장단점을 입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높은 점수를 받은 작품 이더라도 혹여 추가적으로 고려할 점은 없는지 하나씩 짚어가며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개성적인 사유의 깊이, 자유로운 상상력의 활달한 전개, 풍요로운 입말과 농치는 해학, 비판적 시대정신, 압축된 언어의 정확한 사용 등은 우리 시대 시의 본령이 무엇 인지를 다시금 확인하게 해주는 귀한 재능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시 15건 내외의 작품을 1차 심의 통과 작품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발을 딛고 선 곳이 어디든시간에 시인들이 자기 언어에 확신을 가지고 작품 활동을 해나가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조명받지 못했거나 관심과 애정을 받아 본 경험이 적은 시인들에게는 더욱 깊은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런 때에 공인된 기관 으로부터 당신의 작품은 시집 한 권으로 묵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격려를 받는 일만큼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책의 가치, 사유의 가치, 언어의 가치가 대접받지 못하는 시절에 누가 시킨 일도 아니지만 시인들은 저마다 자신의 삶을 바쳐서 지금도 고유한 언어를 일구고 그 언어로 삶의 고통과 신비를 노래합니다. 그것으로 공동체의 삶에 사소하지만 꼭 필요한 아름다움을 더합니다. 이 작업에 더 큰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쉽게도 선정되지 못한 시인들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시B분과 심의위원 일동

■ 2024년 문학 창작산실 발간지원 1차 지원심의 총평(시조)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4년 문학 창작산실 발간지원 1차(시조)
- 회의일시 : 2023년 12월 19일(화) 15:30
- 회의장소 : 예술가의집

시조 문학분야의 문학 창작산실 발간지원 사업은 시조시인의 창작의욕 제고와 창작 활성화를 통한 우수 작품의 격려 및 발간지원에 그 취지가 있다.

1차 심의에서 두 심의위원이 심의의 기본 방향은 전적으로 시조 작품의 수월성, 즉 얼마나 우수한 작품을 창작해내고 있느냐에 중점을 두고 심의에 임했다. 시조가 갖는 시절가조(時節歌調)로서의 시의성과 시사성, 구태가 아닌 시조적 시각의 참신함, 또 전통 정형시로서의 율격의 충실함, 개성적인 감각의 조형성 등에 방점을 두었다.

한 권 분량 이상의 시조 시편들을 심의하는 만큼 작품 전수검사를 통해 전체적인 작품성이 얼마나 고르고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가도 유의하여 살펴보았다. 몇 편의 아주 뛰어난 시편이 있는데 나머지 시편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태작이 많거나 전체적으로 작품 간의 편차와 기복이 심한 경우에는 가중치를 줄 수 없는 점을 두 심의위원은 합의하여 심의를 진행하였다.

시조가 갖는 전통적인 미덕이나 가치가 자칫 고루한 시적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는가도 당연히 살폈다. 더불어 새로운 시적 조류의 영향을 받은 이슈나 소재를 취재한 시편들 또한 단순히 소재주의에 함몰한 이슈몰이의 함정에 빠지진 않았는가도 들여다 보았다.

무엇보다 현대시조가 갖는 새로움과 진지함, 재치 및 발랄함 등을 얼마나 잘 수용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는가에 기대를 갖고 보았다. 한 권 분량의 시조가 갖는 일관된 기류나 개성적인 색깔, 시적 일관성도 심의의 주안점 중의 하나였다.

빠어난 시조 작품군을 창작한 상위순위의 그룹은 심의위원간에 일치점을 보았고 그 다음으로 우수한 시조적 지형을 펼친 후순위 그룹은 서로 동일한 평점을 준 경우에 다음 순위로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2차 심의에 올렸다.

맨 윗길로 올린 상위순위 그룹은 시조적 참신함과 개성적인 자기 시조의 맥락을 타진하고 개척하는 것으로 보였고 무엇보다 작품 전체적으로 기복이 없고 고른 작품성을 유지하는 경향이 완연했다.

시조가 갖는 현대성은 시대적 감각의 개성적인 수용과 시적 감성의 조화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감히 말씀드린다. 무한한 열정과 순수한 창작욕으로 응모해주신 모든 시조시인들의 건투와 문운을 기원한다. 감사합니다.

시조분과 심의위원 일동

■ 2024년 문학 창작산실 발간지원 1차 지원심의 총평(소설)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4년 문학 창작산실 발간지원 1차(소설)
- 회의일시 : 2023년 12월 22일(금) 14:00
- 회의장소 : 예술가의집

2024 문학창작산실 발간지원 사업은 우수 작가의 작품집을 발간하도록 지원하여 한국문학의 확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집필을 완료하여 2024년 발간할 수 있는 작품집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심사에서는 소설 중단편 부문과 장편 부문을 심사 대상으로 하였으며 복제 및 인쇄 등이 불가능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원고를 제공받았다.

2023년 11월 24일부터 12월 17일에 걸쳐 사전전수 검토를 하고, 2023년 12월 22일에 1차 심의 회의를 가졌다. 1차 심의에서는 작품의 소설적 예술성을 중심으로 평가했으며, 신청자의 활동지역, 유사 사업 기신청 횟수 등은 부차적으로 고려했다. “-작품의 기획이 새롭고 독창적인가? 또는 새로운 형식이 돋보이는가? -작품이 작가의 주제 의식을 잘 전달하고 있으며, 그 수준 또한 높은가?”의 두 가지 항목을 주로 평가하였다. 각 심사위원들이 예심을 통해 개별적으로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을 낸 점수가 높은 작품을 위주로 본심에서 논의했다.

그 결과 중단편 부분의 경우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1차 심의 결과가 도출되었으나, 장편 부분의 경우 동점자 그룹의 수가 1차 심의 범위를 초과한다는 점을 회의 과정에서 확인하고 보충 논의를 하였다. 심의위원들은 동점자 그룹을 다시 소설적 완성도를 기준으로 재평가하였고, 이를 재반영하여 1차 심의를 완료하였다. 1차 심의 결과 중단편 부문 18건, 장편 16건을 선정하였다.

문학예술의 특성상 완벽하게 장르를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심사 중 청소년 소설 분과로 구분할 수 있을 작품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논의과정에서 확인하였다. 신청 단계 혹은 심사 단계에서 이러한 장르 구분을 확인하는 작업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는 제언이 있었다.

이번 심사 결과 신인과 중견 작가를 막론하고 여러 세대의 작가들의 고른 성취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 큰 보람으로 남았다. 우수한 작가들의 창작 역량 증진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소설분과 심의위원 일동

■ 2024년 문학 창작산실 발간지원 1차 지원심의 총평(동시)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4년 문학 창작산실 발간지원 1차(동시)
- 회의일시 : 2023년 12월 20일(수) 14:00
- 회의장소 : 예술가의집

이젠 정말로 수십 년 되풀이되어 온 관습적인 소재와 낡은 표현을 깨끗이 버려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시인이 아무리 힘들여 썼다고 해도 기시감을 떨쳐 버릴 수 없거나 심지어는 부분 표절로 의심받을 수도 있는 작품을 볼 때마다 매우 안타까웠다. 차라리 투박하더라도 자기만의 발상과 표현으로 곳곳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는 시들이 한층 더 돋보였다. 또 한 권 분량의 작품을 제출하는 것이 벅찮는지 힘겨워하는 모습도 많이 포착되었다. 예를 들면 한두 편 수작을 앞부분에 배치해서 관심을 갖고 읽게 했으나 뒤로 갈수록 작품 수준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외에 끝까지 다듬지 않고 서둘러 마무리 지은 듯한 시, 형상화하기 이전의 단상을 그대로 제시하고 있는 시, 숙련공처럼 시를 만들어 내고는 있지만 감동을 담지 못하고 있는 시도 마찬가지로 할 것이다. 한 권 분량의 작품을 제출하고자 한다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절차탁마하여 결정체 같은 작품만 제출하기를 권해 본다. 또 일부 시인들이 추구하는 새로운 시도들도 취지는 알 수 있으나 문학적 성취도와 독자와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번 발간지원 1차 심의 동시분과는 이처럼 발간을 예정하고 있는 다양한 작품이 총 81건이 신청되었고, 행정검토 및 심의를 거쳐 16건을 2차 심의 대상으로 확정지었다. 앞으로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이 많은 부분 성숙되어 발간지원 사업으로 진입되어지길 바라본다

동시분과 심의위원 일동

■ 2024년 문학 창작산실 발간지원 1차 지원심의 총평(동화)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4년 문학 창작산실 발간지원 1차(동화)
- 회의일시 : 2023년 12월 20일(수) 11:00
- 회의장소 : 예술가의집

우수작가의 작품집 발간을 지원해 한국문학 발전에 기여하고, 역량 있는 작가들을 격려하는 2024 문학 창작산실 (아르코문학창작기금) 발간지원 사업 동화분과 1차 심의 대상은 장편 동화, 장편 청소년소설, 단편집 포함 총 160건이었습니다.

지원하신 작가님들이 작품을 쓰시느라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셨는지 심의위원들 또한 잘 알고 있어서 최선을 다해 모든 작품을 꼼꼼하게 읽고 심의에 참여했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1차 심의 판단 기준은 작품성입니다. 따라서 주제 전달력, 문장력, 소재의 참신성, 이야기의 흐름이 자연스러운지, 매력적인 인물이 등장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역사를 다룬 작품들은 먼저 역사적 사실을 철저히 고증했는지 확인했습니다. 기존의 역사 작품과 다른 차별점이 있으면 더 눈길을 끌었는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외국을 배경으로 풀어내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이끌어주는 작품은 참신해 심의위원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 sf 작품도 많았습니다. 흥미로운 설정을 보여주지만 하는 작품은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려웠습니다. 그 안에서 인물들이 고민하고, 성장하며 감동을 주는 작품이 있어서 흔쾌히 2차 심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상상력이 넘치는 sf 설정도 중요하지만, 이야기를 이끌어갈 인물들의 목소리에 더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어린이 청소년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 가장 많았습니다. 성적 경쟁, 학교, 친구 문제 등 흔한 소재와 주제를 다루더라도 배경과 인물을 색다르게 바꿔서 익숙함에서 벗어난 작품, 소외된 약자들을 따스한 시선으로 보듬어 감동을 주는 작품을 주목했습니다.

아쉬운 점도 밝히면 인물들의 대화를 통해 노골적으로 주제를 전달하는 작품은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요즘을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인데도 단어, 대화, 분위기, 인물들의 태도 등이 과거의 모습과 비슷한 작품도 있습니다. 그러면 독자들이 공감하기 어려울 테니, 취재를 꼼꼼하게 해서 어린이 청소년들의 삶을 생생하게 반영하면 좋겠습니다.

저학년을 주요 독자로 하는 동화에서는 문장이 간결하고, 캐릭터가 인상적인 작품을 2차 심의에 추천했습니다.

연작동화는 단편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주제를 확장하는지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인물을 등장시키면 이야기가 어수선해질 수 있으니 연작을 준비할 때 더 철저히 구성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림책의 글 원고도 접수가 되었는데, 그림책은 그림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분야라서, 그림 없이 원고만 심사해도 되는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1차 토론 심사를 거쳐 총 30편을 2차 심의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번 심의를 하면서 좋은 작품을 많이 만났는데, 앞으로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문학의 밝은 앞날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갈수록 출판 환경이 어려워지고 OTT, 개인 방송 등 다양한 이야기 플랫폼이 늘어나면서 독자가 즐기고 있는 글쓰기 어려운 시기에도 오늘도 묵묵히 매진하시는 작가님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동화분과 심의위원 일동

■ 2024년 문학 창작산실 발간지원 1차 지원심의 총평(수필)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4년 문학 창작산실 발간지원 1차(수필)
- 회의일시 : 2023년 12월 22일(금) 11:00
- 회의장소 : 예술가의집

문학 창작산실 아르코문학창작기금 발간지원은 문학적 역량이 뛰어난 우수작가의 집필활동을 지원하고, 그 성과를 발표할 기회를 확대하여 문학 작가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한국문학을 대표할 수 있는 작품을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로 하는 사업이다.

2024년 발간지원 1차(수필) 심의에서는 총100건의 작품을 심의하여 총 19건을 선정하였다. 다양성을 갖춘 많은 작품 가운데 소수를 가려내는 일이 수월치 않았다. 응모작 중에서 작품성만을 면밀히 살펴 우위에 두었는데, 같은 값이면 문학적 가치로서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글에 주목하였다.

이번 심의를 하는 동안 우수작품이 유독 많아, 수필문학의 발전된 성향으로 해석되어 든든함이 앞섰다. 공모사업의 특성상 선정기준에 근거하여 우수작 몇 편을 선하는 데 있어 심의위원들의 고충이 있었으나, 치열한 통찰에 의한 창작정신이 돋보여 즐거움도 따랐다.

심의과정에서 냉철한 잣대로 저울질한 것은 기본적인 문학과 문체의 향훈이었다. 이러한 기반 아래 약 5대 1의 경쟁을 뚫고 선 안에 든 작품은 대상에서 의미 찾기에 탁월하여 수필의 진수를 뽑아내거나, 문장 흐름이 자연스럽고 직관적 묘사에 성공한 작품이었다. 예리한 눈으로 삶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골격에 깨달음의 의미를 채워가는 문장력을 높이 보았다. 일상의 평이성에서 벗어난 문학적 깊이와 넓은 사유에 초점이 맞았는데, 체험을 녹여내어 문학적으로 승화시키는 솜씨가 일품이거나, 다양한 사고로 지평을 넓히는 작품이 참신성 면에서 돋보였다. 인생 경륜답게 세상사에 대한 시선의 폭이 넓으며 깊거나, 노인 문제에 직면해 천착해 들어간 작품, 그리고 산업화로 점차 잊혀 가는 향토적 사료를 찾아 발품 팔며 채록한 글, 방언을 살리고 표준어로 표기 하되 문학적 향취가 물씬 나는 글을 찾아내는 데 주력하였다. 다양한 우수작품 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작가가 예술적으로 공들인 승화 작업이었으며, 빛나는 작품이 많았던 만큼 그 폭의 여하에 따라 선정의 문도 달라질 수 있었음을 밝혀둔다.

이번 심의에서 특히 와 닿는 것은 테마 수필의 비중이 늘었다는 점이다. 어느 한 가지에 주력하여 밝은 눈길로 천착해 들어가 사회적으로나 문학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부르면 금상첨화겠으나, 이러한 양상이 자칫 유행처럼 번져 수필의 본령으로 굳어갈까 조금은 저어됨을 밝혀둔다. 수필의 진수는 단문일지라도 삶을 대변하는 통찰과 여운에 있는 까닭이다.

수필분과 심의위원 일동

■ 2024년 문학 창작산실 발간지원 1차 지원심의 총평(평론)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4년 문학 창작산실 발간지원 1차(평론)
- 회의일시 : 2023년 12월 19일(화) 11:00
- 회의장소 : 예술가의집

2024년도 문학 창작산실 발간지원 사업은 역량 있는 작가의作品集 발간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한국문학의 확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창작활동을 시작한지 3년이 경과한 작가들이 응모한 1권 분량의作品集 원고를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평론분과 심의위원들은 작품 기획의 독창성과 형식의 새로움, 분석 대상이 되는 작품을 선별하고 분석하는 힘, 그리고 평론가의 문제의식이 글을 통해 잘 구현되고 있는지 여부와 나아가 그것이 현재 우리 사회와 독자들에게 갖는 유의미성 등을 심의기준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심의위원들은 먼저 응모한 작품들을 숙독 하면서 그 문학적 의미를 가려 개별적으로 사전검토를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모인 뒤에 다시 서로의 의견을 나누면서 최종적으로 지원 작품을 선정했습니다.

지원한 작품들은 모두 저마다의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었으며, 또한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는 문학작품들의 다양한 스펙트럼은 문학 현장에 언제나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하는 평론의 기본적 태도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나아가 평론가 고유의 시선과 의미 부여는 작품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문학적 범주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사회적 접점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독서의 행위가 개별적 차원을 넘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평론의 궁극적인 가치 또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실에 존재하는 무수한 형태의 약자에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그 위로 자신의 모습을 겹쳐둠으로써 문학적 범주를 넘어 사회적 공감의 차원으로 확장해나가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글이나,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지지를 보내는 문학인들의 활동에 주목하면서 그 의미에 대한 평가와 함께 문학적인 연대의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 글들이 그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짧은 분량과 단편적 리뷰 형태로 대상 문학작품의 보편적 특징을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거나, 자신만의 문제의식 또는 일관된 기준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대상 문학작품의 내용을 따라가고 있는 글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수록된 응모작들의 경우에는 그 단점들을 지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분야에 비해 평론의 경우 상대적으로 응모 작품이 적은 것이 아쉬웠습니다. 언젠가부터 대학의 도서관이나 공공 도서관에서 평론집은 점차 찾아보기 어려워졌으며, 대형 출판사조차 평론집을 출간하는 일이 아주 드문일이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소한 평론가나 평론 글 자체가 줄었기 때문은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꾸준히 글을 발표하고 있는 평론가들에게는 그것을 책으로 출간하는 일이 점차 요원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응모 작품이 적었던 것은 어쩌면 이같은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공 영역에서의 관심과 지원이 평론 분야에 보다 확장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평론분과 심의위원 일동

■ 2024년 문학 창작산실 발간지원 1차 지원심의 총평(희곡)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4년 문학 창작산실 발간지원 1차(희곡)
- 회의일시 : 2023년 12월 19일(화) 14:00
- 회의장소 : 예술가의집

2024년도 문학 창작산실 발간지원사업은 우수 작품의 발간을 지원하여 한국 문학의 예술적 역량 확대에 기여겠다는 취지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심의는 1차와 2차의 2단계로 진행되는데, 이번에 수행한 1차 심사의 심의기준은 작품의 문학적 수준(100%)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1차 심사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1. 작품의 기획이 새롭고 독창적인가? 또는 새로운 형식이 돋보이는가?
2. 작품이 작가의 주제의식을 잘 전달하고 있으며 그 수준 또한 높은가?

그밖에 장르적 특성에 부합된 문학적 수준을 가늠하기 위해 연극성을 살린 형식미와 문학적 표현, 자연스런 대사와 전달력 등을 고려하였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총 18건의 신청작품 중 행정검토에서 결격 처리된 3건을 제외한 15건을 대상으로 면밀한 사전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총 7건을 2차 심사에 오를 후보로 선정하였다.

1차 심사에서는 위에 제시된 문학적 수준의 심사기준에 따라 작품성을 심의하였다. 심의위원회는 우선적으로 지역창작극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따라서 지역문학의 특성을 현대적으로 표현해낸 작품에 주목했다. 또한 역사적 소재와 우리 고유의 정서를 연극적으로 살려 현대적 터치로 그려낸 작품도 여러 편 있어 반가웠다.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작가의 주제의식을 잘 드러낸 작품들, 간결한 문장과 은유적 표현으로 연극적 상상력을 자극하고, 치유력있는 따뜻한 서정이 돋보이는 가족 이야기 등, 다양한 작품들이 포스트팬데믹 시대 더욱 단단해진 우리 희곡 창작력을 확인시켜 주었다.

또한 최종 목표가 희곡집 발간이므로 1편의 희곡만 제출한 경우, 그 분량이 너무 적어 희곡집 발간에 필요한 최소요건과 형식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작품은 2차 심사후보로 선정하지 않았다.

희곡은 어느 나라에서든 창작극 개발에 기본이 되는 중요한 장르로서 우선지원 대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문학지원사업의 변방에 머물러있는 게 사실이다. 본 사업에서 반가운 것은 평론이나 에세이등 타장르에 귀속시키지 않고 희곡 발간지원을 별도 분야로 시행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열악한 직업환경으로 인해 전업 희곡작가가 턱없이 부족한 현 상황을 고려할 때, 희곡 지원사업은 예외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지원자 수가 적은 상황에서 "지원수에 대비하는 선정률"의 원칙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15건 중 겨우 1건만 선정될 수 있는 현 제도는 현실에 맞게 변경할 필요가 있다. 우수한 희곡작가를 지원하고 창작극을 활성화하기 위해 희곡 분야에 대해서는 적어도 2~3편의 기본선정 건수를 보장하는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그래야 지원수도 점차 늘게 될 것이고 희곡창작의 경쟁력도 확보될 것이다.

희곡분과 심의위원 일동

■ 2024년 문학 창작산실 발간지원 2차심의 총평(시·시조)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4년 문학 창작산실 발간지원 2차(시·시조 분과)
- 회의일시 : 2024년 2월 5일(월) 11:00
- 회의장소 : 서울프린스호텔

이 사업은 우수 작가의作品集 발간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한국 문학의 확대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2차 심의에서는 1차 심의에서 선정된 작품들을 대상으로 작품의 우수성(50%), 작가역량 및 발전 가능성(30%), 선정 이후의 기대효과(20%)를 고려하여 심사위원별로 사전전수검토를 수행한 후 한 자리에 모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1차 심사를 통과한 작품들이라보니 아무래도 원고의 완성도가 높았다. 시의 경우, 서정성을 드러내면서도 그것을 세련된 언어에 담아내는 줄 아는 능력, 또한 설득력있는 이미지와 형상으로 탄탄하게 구성화해내는 능력이 두드러진 작품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언어 그 자체에 주목하여 자유로운 리듬감과 개성적인 스타일을 선보인 작품들도 주목에 값할만한 성취를 이룰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주제적인 측면에서는 삶의 현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스러져 가는 것들에 대한 깊은 공감, 소외된 것들과의 연대의식, 존재에 대한 근원적 질문, 유년과 기억 속의 풍경, 생태와 기후위기 시대의 시적 대응에 대한 고민 등을 다룬 작품들이 두루 다양한 개성을 뽐내며 우리 시의 가치와 다양성을 증명하고 있었다. 2차 심사에서는 완성도를 확보하면서도 발전 가능성이나 신선한 개성을 드러낸 작품들이 차별점을 만들며 부각되었고 부수적으로 작품 편수와 출간 계획의 구체성 등도 고려의 대상이 되었다.

시조의 경우, 전체적으로 보자면 전통적 형식미와 주제의식을 보존하는 쪽과 현대시조의 가능성을 더욱 열어놓는 쪽의 작품들로 양분되었다. 양쪽 모두 지금 시대 시조의 의미가 어떤 것이어야 할지에 대한 시인들의 고민이 반영되어 있었다. 작품 편차가 적고 일관된 정서와 몰입도를 유지하고 있는 작품들이 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인간과 자연물의 유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되, 상투성을 극복하고 정서적 균형을 잘 유지하고 있는 작품들에 주목하였고 삶에서 길어낸 서정성이 시조적 율격과 활력 안에서 오히려 생생해지는 작품들이 높은 평가와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작품 각각의 주제와 스타일은 다를지라도 이것이 좋은 작품이다, 라는 심사위원 간의 합의는 어려움 없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번 심사를 통해 우리 시와 시조의 활력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은 큰 축복이었다. 아쉬운 것은 역시 최종 선정에 들지 못한 지원자들의 경우이다. 깊은 위로를 전한다. 더 큰 기회와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한다. 가까운 시일 내에 이번 선정 작품들이 출간되어 독자들과 만나 우리 문학의 성취가 널리 전파되기를 바란다. 포기하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문학과 삶을 병행하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와 애정을 전한다.

시·시조분과 심의위원 일동

■ 2024년 문학 창작산실 발간지원 2차심의 총평(소설)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4년 문학 창작산실 발간지원 2차(소설 분과)
- 회의일시 : 2024년 2월 6일(화) 11:00
- 회의장소 : 서울프린스호텔

아르코문학창작기금 발간지원 사업은 뛰어난 문학적 역량과 창작 의지를 가진 소설가의 창작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작가들의 창작 열정을 북돋아주고 작품집 발간을 지원하여 한국문학의 저변을 확장하고 문학적 역량을 비약적으로 고취할 수 있게 한다. 특히 이러한 발간지원 사업은 창작자를 위협하는 챗 GPT 시대에 작가들이 자신만의 고유한 창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작업환경을 제시할 수 있다.

이번 심의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 사항은 당연히 작품의 우수성이다. 이때 작품의 우수성이란 작품 내적 완성도, 독자의 호응을 이끌어낼 만한 가독성, 시대와 호흡하는 당대성 등을 두루 포함한다. 거기에 신청 작가의 문학적 역량과 작가로서의 발전 가능성, 작품 발간 후 기대효과 등이 심사의 기준이었다.

이러한 심의 기준은 이미 지원사업에서 공지한 심의기준으로, 심사위원 3인은 이 기준에 따라 일차적으로 사전 검토를 마친 뒤 대면심의회의에서는 사전전수검토 자료를 중심으로 토론과 합의를 통해 최종 지원 작품을 선정하였다. 사전 검토는 물론 현장에서의 회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선정 작품들에 대한 평가기준이 심의위원들 간에 크지 않아 작품 선정 과정은 비교적 순조로웠다. 1차 심의를 통과한 작품들이라 그런지 대체로 일정 정도의 문학적 역량을 갖춘 작품들이 많았다. 그러나 간혹 개인적 체험의 영역에만 머무르거나 당대적 맥락과 문제의식에서 벗어난 경우도 있어 이런 작품들은 좀 더 많은 문학적 토론과 논의가 필요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본 심의위원들은 최종적으로 장편 5편, 중단편 8편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작가에게는 각 천 만원의 작품 발간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번 2차 심의에 올라온 작품들은 크게 세 가지 경향성을 갖는다. 첫째는 자서전적인 회고담이나 자전적 경험담에 기반한 소설이다. 역사적인 사건조차 주인공의 개인 체험 안에서 다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두 번째는 장르적인 소설이다. 미스터리, 호러, SF 장르 등에 대한 관심은 몇 년 전부터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한국문학에서는 아직 낯선 SF 장르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세 번째는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한 소설들이다. 사건과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전개하건 주인공의 내면적 서술을 통해 이루어지건 간에 작가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적 인식이 도드라져 보였다. 물론 그 외에도 자기만의 개성이 강한 문학적 실험 소설, 전통 역사소설, 성장소설 등도 있었지만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았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소설을 읽는 과정은 전반적으로 즐거운 경험이었다. 확실히 문학에 대한 작가의 생각이 더 다양하고 풍성해졌다는 인상이다. 특히 예전에는 상업적이라고 치부될 수도 있었던 작품이 이제는 독자 친화적인 대중성을 갖춘 가독성 있는 작품으로 평가받거나 오랫동안 추구되었던 문학적 지향이 때론 낯익은 클리셰로 느껴지기도 하는 것을 보면, 확실히 문학성에 대한 평가 기준은 고정되지 않고 계속 변화하는 것 같다. 좋은 문학작품이란 시대의 변화를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재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이번에 선정된 작품들이 새로운 문학적 기준을 제시해주는 것은 물론 독자들에게도 더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본다.

소설분과 심의위원 일동

■ 2024년 문학 창작산실 발간지원 2차심의 총평(아동·청소년)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4년 문학 창작산실 발간지원 2차(아동·청소년 분과)
- 회의일시 : 2024년 2월 5일(월) 14:00
- 회의장소 : 서울프린스호텔

한국문학의 토대를 단단히 하고 저변을 넓히기 위해 마련된 발간 지원 사업은 작품 집필이 완료되어 2024년도 이내에 발간 예정인 작품을 대상으로 하였다. 1차에서 선정된 동시 16편, 중단편 동화 및 청소년소설 8편, 장편동화 및 청소년소설 22편을 대상으로 2차 심의를 진행하였다.

심의위원들은 첫 번째로 작품 기획이 새롭고 개성적인지 또는 새로운 형식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작가의 주제의식이 잘 형상화되어 있는지 등의 작품의 우수성을 위주로 검토하였다. 동시의 경우 우수한 작품이 적지 않아 선정이 쉽지 않았으나 어린이를 중심에 둔 시선과 시가 가져야 할 미학을 겸비하고 있는 작품을 추렸다. 어린이의 일상에서 찾은 소재에 매력적인 상상과 깊이 있는 성찰을 발휘하여 동시의 영역을 넓히고자 시도한 작품을 선정하였다. 간혹 자유로운 연상 과정에서 참신함이 지나치거나 반대로 익숙한 관점으로 일관되어 시적 감동이 약한 시들이 보여 아쉬움을 남겼다. 단편동화의 경우 길지 않은 분량에 담아야 할 주제와 서사가 잘 정리되어 있는지 한 권의 작품집에 담길 단편들이 고른 작품성을 보여주고 있는지 살폈다. 때로 현재적 시선보다는 예전의 삶의 풍경에 치중하는 작품들이 보였는데, 현재를 사는 어린이의 삶과 눈높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아동문학이 '희망'의 메시지만 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린이 인물을 어둠에 노출시키는 과정에서 '전망'을 보여주려는 세심한 배려 또한 필요해 보였다. 장편동화는 상대적으로 긴 호흡으로 이야기를 끌어나가는 과정에서 작품의 플롯이 작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운지 살폈다. 또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서사에 녹여 허구의 리얼리티로 완성하였는지도 주목하였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일상이 구체적으로 잘 그려졌는지 가령 어린이나 청소년 독자에게 다가서면서도 문학적 성취가 담긴 서사와 문장과 대화인지도 고려하였다. 이미 독자에게 지나치게 익숙한 이야기의 경우에는 새로운 감동을 전달받기 힘들었다.

심의위원들은 두 번째로 작가의 창작 역량과 발전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취재 등을 통해 참신한 소재를 발굴하려고 노력하였는지, 과감하면서도 자연스럽게 형식 실험에 도전하고 있는지 살폈으며 급변하는 시대에 인간이 나아갈 철학을 고민하고 제시하고 있는지도 살폈다. 가령 사회의 변화와 상관없이 여전히 인간중심주의에 머물고 있지 않은지, 동물, 비인간, 장애 등의 문제에 관해 시혜적인 태도를 넘어서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지 살폈다.

심의위원들은 마지막으로 선정 후 기대되는 발간 가능성과 기대성고를 살폈다. 또한 작품이 출간될 가능성을 넘어 출간 후에도 독자, 동료 작가, 사회 전반에 의미 있는 작품으로 긴 생명력을 얻을 수 있는 작품인지 검토하였다.

이번에 들어온 작품집의 특징을 보면 장편동화의 경우 이전에 비하여 SF 장르가 두드러져 시대적 변화를 실감하였다. SF 장르는 과학기술이라는 시대적 담론과 밀접하게 조우하며 이를 문학적 상상력으로 돌파하고자 하는 판타지다. 단지 소재가 아닌 SF가 가진 서사적 개성을 살릴 때 장르적 재미가 한층 깊이 있게 전달될 것이다. 또한 기후 위기, 생태계 등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하고 인공지능과 같은 비인간 담론이 두드러지는 장르이므로 이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 느꼈다.

또한 청소년소설의 지속적인 성장세도 눈에 띄었다. 반면 상대적으로 저학년용 동화의 경우 작품 수는 줄지 않았으나 참신함보다는 기존 장르적 관습을 따라 안정적인 플롯으로 접근한 작품이 적지 않았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과감하고 개성적인 시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데, 해당 장르는 실험과 균형, 원심력과 구심력의 지혜가 필요한 시기인 듯하다. 동물을 등장시킨 전통적인 의인동화, 어린이의 삶을 그린 생활동화 등 전통적인 장르도 작가만의 개성으로 참신한 소재나 인물을 발굴하고, 서사적인 실험을 통해 신선함에 도전하기를 바란다.

아동·청소년분과 심의위원 일동

■ 2024년 문학 창작산실 발간지원 2차심의 총평(수필·평론·희곡)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4년 문학 창작산실 발간지원 2차(수필·평론·희곡 분과)
- 회의일시 : 2024년 2월 5일(월) 16:00
- 회의장소 : 서울프린스호텔

2024년도 문학 창작산실 발간지원 사업은 작품집 발간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작가들의 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한국문학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창작활동을 시작한지 3년이 경과한 작가들의 1권 분량 작품집 원고를 대상으로 한 이 사업의 2차 심의는 수필과 평론, 희곡 각 분야에서 먼저 1차 심의를 거친 작품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심의위원들은 각 문학 분야의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획의 독창성을 비롯해서 저마다의 장르적 특질이 반영된 문학적성, 그리고 주어진 문학적 사명을 감당해냄으로써 독자들에게 문학적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는지 여부, 새로운 문학적 성과를 성취할 수 있는 창작 역량과 발전 가능성 등을 두루 살폈습니다. 먼저 1차 심의에서 선정된 작품들을 숙독하면서 개별적으로 사전검토를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모인 뒤에 다시 서로의 의견을 나누면서 최종적으로 지원 작품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심의 작품들은 모두 각 분야의 특성에 걸맞는 문제의식과 높은 문학적 수준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수필의 경우 문장의 운용과 표현력을 비롯해서 한 권의 작품집으로서 갖는 일관된 기획성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그 질적 수준의 향상을 확연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희곡은 대부분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들로 일상적인 모습을 깊이 있게 다루면서도, 한국적인 소재들을 다채롭게 활용하는 등 극의 가능성을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평론의 경우 우리 사회의 문제적 지점들과 맞닿아 있는 다양한 문학 작품을 대상으로 평론가 고유의 분석적 시선들을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수필 장르의 경우 잊혀가는 향토적 사료의 채록 위에 아름다운 서정성을 가미해서 보여주는 글이나, 개인적 경험이나 깨달음이 식물이나 자연물 등 소재와 잘 결부되어 일관된 주제를 드러내고 있는 글 등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희곡의 경우에는 관혼상제를 중심으로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우리 사회 가치관의 변화를 일관되게 탐구하고 있는 작품, 우리 역사 속의 대표적인 인물들에 주목하면서 그것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는 작품 등이 안정적인 가독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론의 경우 소수자의 목소리에 주목하고 있는 작품들이 많았다는 공통점이 가장 인상적이었으며, 그와 함께 언어의 심연에 대해 사유하고자 고심했던 작품 역시 평론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했습니다.

다만 그 주제의식이나 기법의 세련됨에도 불구하고 언어의 밀도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거나, 작가적 개성이 비교적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은 작품 그리고 기존의 다른 작품들과 차별성이 부족하고 특히 수록된 작품 간의 편차가 확연한 응모작들의 경우 진중한 논의가 필요했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기에 지원 선정 작품 역시 한정적이라는 사실에 심의 위원들은 모두 아쉬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학 장르에 대한 공공 영역에서의 관심과 지원이 보다 확장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수필·평론·희곡 심의위원 일동